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 신 목
〈새생각회 회장〉

자만은 기업의 암이다

미국 담배 럭키 스트라이크<그림 2>와 카멜<그림 1>의 판매 경쟁을 보면 ‘이만하면 문제 없다.’고 자만하고 개량하지 않아서 비참하게 지고 말았다. 지금은 담배갑에 셀로판 포장은 일반화됐지만 그 시작은 카멜 담배였다. 미국의 담배는 민영으로 그 중에도 럭키 스트라이크와 카멜은 항상 1, 2위를 다투는 경쟁회사로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사이였다.

당시 카멜은 오랫동안 럭키 스트라이크에 눌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앞질러야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었다. 그 때에 셀로판지의 새 아이디어가 나타났다.

“셀로판으로 싸면 담배가 눅눅해지지 않는다.”는 장점에다 지나치게 건조하지도 않아서 항상 이상적인 상태로 담배를 보관할 수 있었다.

“됐다. 이것으로 누르면 럭키쥬이야! 다른 담배도 이제야 꼼짝 못 하겠지!”

간부들은 뿔뿔이 기뻐하면서 셀로판 포장의 카멜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이것보다 앞지르는 아이디어는 없다고 생각한 셀로판 포장이 뜻밖에도 잘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꾸물거리고 있을 때 적수인 럭키가 재빨리 팔말이나 호프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셀로판 포장 위에 가늘고 빨간 테이프를 붙여서 테이프만 당기면 곧 셀로판 포장이 뜰 어지게 한 신제품으로 도전했다. 이것으로 카멜은 럭키에게 지고 말았다. 그 까닭은 셀로판포장은 분명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피우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셀로판을 뜯는다는 것은 꽤 귀찮았다. 잘못하면 감질나게 뜯기지 않는다. 그래서 잘 안 팔렸다. 그러나 럭키는 빨간 테이프로 아주 간단히 뜯긴다. 그래서 럭키는 인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 카멜은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나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의 습관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었다. 상품 아이디어를 낼 때 충분히 소비자의 습관을 조사할 일이다. 최후의 비결은 결코 현상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계에서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것은 ‘정지해 있는 것’이다.



〈그림 1〉



〈그림 2〉

지능과 경험이 발명한다

발명을 지능과 경험이 만들고, 지능과 경험은 훈련이 만든다고 한다.

발명은 물리, 화학과 그 응용과 생각 하기, 특히 전기나 기계에 대한 공학상의 지식이 필요하다.

발명은 이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곤란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작력이다. 이것이 없으면 발명의 결말을 잘 매듭짓지 못한다.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장난감을 주면 그것과 노는 흥미와 함께, 그 장난감의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 많은 경우 노는 흥미를 한번 맛보면 그것을 뜯어서 알맹이를 보고 싶어한다. 그럴 때 구미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뜯는 것에 그리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함께 거들어서 잘 분해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알맹이를 알아 보고 끝나면 다시 아이들의 앞에서 그것을 원상대로 조립해 주는 성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부모들은 이제 갓 사준 장난감을 아이들이 부수거나 할라치면 폭발적으로 꾸짖고 만다.

이와 같은 풍토여서 우리 나라는 구미인에 비해 어른이 되어도 특히 기계의 지식이라면 도무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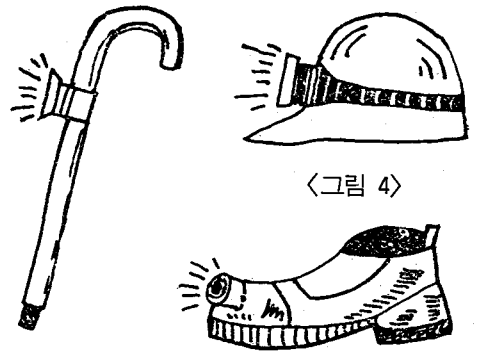
그러나 요사이는 어린이들의 공작력이 차츰 나아져서 비행기의 모형 만들거나 라디오 수신기의 조립 같은 것에 흥미를 갖게 되어 발명에 필요한 기술상의 지식도 차츰 나아지고 있다.

여기에 부모의 좋은 이해만 덧붙인다면 우리 겨레는 원래 뛰어난 두뇌이기에 장래에 희망을 크게 걸어도 좋으리라. 현재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하고 싶어도 우선 머리의 준비와 경험의 정도에 따르는 것이므로, 처음에

손대는 것은 될수록 어려운 것을 피하고 아주 쉽고 간단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손쉬운 것으로, '꼬마전구 달 곳 찾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자.

'전구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는 원리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아버지 지팡이(그림 3)에도 달아 보고, 모자앞(그림 4)에도, 운동화 코(그림 5)에도, 안경대에도, 드라이버에도, 볼펜에도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부터 찾아내어 달아본다.

이런 활동이 바로 발명이며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림 3>

<그림 4>

<그림 5>

상식 깨고 고정관념 벗자

상식이나 고정관념에 기대서는 무난은하겠지만 발전은 없다. 새로워질 수도 없다.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

발견, 발명, 개선, 개량, 개혁은 거의 영똥한 사람들이 이루었다. 걸출한 인물, 독창적인 인물이 되려면, 틀을 버려라. 상식을 버리고 부딪쳐라. 그래야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콜롬부스는 미치광이 대접을 받았고 에디슨은 저능아라고 학교에서 쫓겨났고, 간디는 율

법을 배반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배반자로, 처칠은 고집장이, 열등생이라는 괘시를 받았다.

흔히 서적을 눈으로만 읽기 쉬운데 중요한 대목은 색볼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떠오른 생각을 덧붙이거나, 그리면서 손으로 읽도록 해야 한다.

여백을 지상연구실로 삼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기록하는 습관이야말로 발명가의 필수적인 습관의 하나다.

간단한 그림이나 설계도를 자주 그려보는 것은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승화시키게 된다.

창의력은 지식과 더할 때 무적의 힘을 발휘한다.

아이디어맨이 되려면 날마다 일정한 시간

을 정해서 연구하고 사고하라. 연구실이 유용한 것은 그 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연구하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 행위의 70%는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겠다. 습관은 반복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1919까지의 특허를 가진 발명왕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발명이란 99의 정보 수집을 조합하는 노력과 1의 행운이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100분 이상 독서하라. 독서로 얻은 폭넓은 지식은 발명을 살리게 한다. <♣>

신간안내

역사를 바꾸 기 세계적이 바며 바뀐 기 기 기 기 기

저자: 왕연중
그림: 김민재
규격: 국판 188면
가격: 5,000원

왕연중(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부 차장)씨의 서른 세번째 저서로서 월간발명특허, 과학교육, 소년중앙, 새소년, 우리시대, 굴렁쇠, 어린이등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소설, 동화, 수필형식으로 다시 쓴 발명, 발견이야기이다.

즉우기의 발명가 장영실등 국내 2인과 텔레비전의 발명가 베어드등 외국인 10인의 발명에 얽힌 이야기를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엮었으며 부록으로 마련된 발명교실에는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발명의 발상기법이 실려있다.

모두 5권으로 발간되며 이 책이 그 첫번째이다.(전화 551-5571~2)

한국발명진흥회 발행